

유럽에서 '卍'은 민간신앙 상징



해외불교칼럼

기원전 8세기경부터 지중해 연안과 남부유럽에서 태양과 역동성의 상징으로도 쓰인 스와스티카(이하 卍으로 표기)는 현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발트연안 등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천둥번개의 신 페르콘을 뜻한다.

바이킹과 같은 해적질이든 고기잡이든 대체로 바다에서 삶을 꾸려가는 북 유럽인들에게 천둥번개, 강풍 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먼 훗날 같은 지역에서 卍은 전기의 뜻으로 바뀌어 발전소, 변전소의 지도표식, 고압전류 경고용으로 쓰인다. 발전기, 엔진 등 전기관련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ABB라는 거대다국적기업의 지분회사가 된 스웨덴의 ASEA는 1883년 창업 이래 자사 로고이던 卍을 1933년부터 사용 중단한다. 나치가 당장으로 쓴 뜻이다. S자가 가로지른 곡선형 卍은 게르만 대이동 등 민족, 부족의 집단이주도 뜻한다.

켈트족은 브리가 또는 브리기트 여신을 상징하는 브리기트 십자문양을 쓰는데, 오늘날 아일랜드의 국화인 삼색과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떠올린다. 이 문양은 큰 바위에 각인되어 우리의 옛 성황당처럼 켈트족의 간이 기도처가 되며 호신부적으로 무기로도 새겨진다. 이와 닮은 문양은 영국 등 도서지역에서도 필쫓, 즉 네 개의 다리를 묘사하는 卍으로 부족, 씨족의 문장(紋章)이나 방패 등에 나타난다.

이는 기독교가 어느덧 로마제국의 통치기반이 된 5-10세기의 일이다. 기독교가 생겨나자마자 유럽인의 종교가 된 건 아니다.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 부르던 여러 무리가 모여 살던 서부유럽이 기독교화된 건 9세기 경이며 스칸디나비아반도 등 북부와 동부유럽은 2세기 좀 더 걸린다. 게다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친 십자군전쟁이란 집단극약범죄가 자행될 때까지도 러시아정교도들은 세례 받은 곰(Baptized Bear)이라 따돌림을 당한다. 이후 유럽전역에서 선교니 교화니 들러대는 기독교도와 토착신앙의 '이교도' 간에 내리 벌어진 유혈추태까지 열거하는 건 시간낭비다.



조계사 범종루 지붕 합각에 새겨진 卍자

그래저레 유럽에선 십이 종교적 표시이 되고, 卍은 종교보다는 힘, 에너지, 행운을 의미하는 민간신앙의 상징으로 비껴선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즉 아브라함에 기원을 둔 종교도 卍을 더러 쓴다. 로마제국의 유태침례기에 세워진 예인 계도의 유태교 회당, 이란의 이스파한에 있는 이슬람의 금요일 모스크 및 레바논의 타이날 모스크에서도 장식용으로 쓴다. 또 시몽드기양 가톨릭수도원장의 묘비에 새겨진 목에 두르는 띠, 윈체스터 성당의 윌리엄 에딩턴 주교의 초상화의 목 띠에도 卍이 보인다.

근은 파리 노트르담성당의 바닥장식,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소피아성당의 모자이크, 이탈리아 밀라노의 암브로세성당 등에도 쓰며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의 건축물에도 활용된다. 한편 기독교에선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를 상징하여 네 꼭지가 짧은 卍을 쓰며 히틀러가 어릴 때 잠깐 다닌 오스트리아의 림바흐성당의 베네딕트회합창학교에도 卍이 새겨져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18년 내전 때 노동소작 계급인 적군(赤軍)을 격멸하는 중산지주계급을 대변한 백군(白軍)의 상징, 여성국방의 용군 마크, 공군휘장으로 1950년까지 사용한다. 1925년 미국의 코카콜라회사는 열쇠고리 비슷한 행운의 卍을 판촉용으로 쓰고 캐나다의 여자아이스하키 팀도 로고로 쓴다. 영국은 전시검약보국대의 마크, 보이스카우트의 행운의 배지, 덴마크의 다국적 양조산업체인 칼스버그에서도 자사 로고로 卍을 쓰다 나치가 '하켄크로이츠'를 채택하자 이내 사용을 중단한다. 이는 독일어로 갈고리(Haken)와 십자가(Kreuz)가 이어진 말로 고대게르만어 무리에서 근대 게르만공국들을 거쳐 나치의 제3제국에 이른다. 처음엔 卍과 卐을 혼용하던 나치는 1920년 아리안족의 진로와 창조 의 상징으로 45도 기울어진 卐을 최종확정한 뒤, 이후 卐은 십과 이중문양을 이루며 철십자훈장, 군도, 군용반지, 전차자모비 등에 두루 쓰인다.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전당대회에서 천년제국의 저주로 나무기린 3만2천개의 갈고리십자가 깃발의 광풍은 인류사에 몹쓸 상처를 남기고 고작 열두어 해만에 사그라진다. 그러나 '부디 잘 되어지시라'의 뜻으로 3천여 년을 이어온 스와스티카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고이 남아있다. 출처: 성효 스님, 참조: Design & Culture, Modern Use of Swastika 등

美 '황엔스' 복전함 털이범 검거

범행 목격환 관광객 신고로

4월 27일 미국 뉴욕 주 켄트의 황엔스(熊巖寺)에서 복전함을 털린 인근주민 세 명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말 관광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십대 후반부터 이십대 초반의 일당 중 약탈 중독 상태의 남자는 현장에서 잡히고 달아난 여자 두 명은 수 시간 후 체포됐다. 절도, 무단침입, 약탈복음, 장물취득, 질서문란 등의 혐의로 6월 5일 치안재판에 회부될 이들이 출전 금

액은 달러 미만으로 추정, 경찰이 사실 확인 중이다. 이곳에서는 2001년 말과 2002년 초에도 복전함이 털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타코닉주립공원도로 인근의 언덕에 중국 당조(唐朝)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이 사찰에는 서구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34피트의 대리석불상과 만불상이 모셔져 있다.

인근 주민들의 불교화습, 명상 및 기도처로 널리 애용되는 황엔스는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몽골어, 티베트어, 일본어로 된 불서 7만권을 소장한 도서관까지 갖춘 대가람이다. 출처: JN

中, 천수관음보살 석상 개보수

중국 중경시정부는 4월 25일 800년 된 천수관음보살 석상을 전면 개보수할 것이라 밝혔다. 다주 암각조형박물관과 중국문화유산학회의 합의에 따른 이 프로젝트는 미화 147만 달러가 소요되며 2010년 말 종료된다.

남송(南宋) 때인 1127부터 1279년에 걸쳐 다주군의 바오딩산의 정면 15m에서 30m 사이에 조성된 천수관음상은 실제로는 1007개의 팔을 지녔고 손바닥마다 눈(眼)이 새겨져 있다. 이 지역에는 당조 초기인 618-907년 사이에 조성된 석굴과 석불 등 5만 여개가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출처: 新華社

“불교란 스스로 깨우치는 것”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③



존재와 자연스레 하나가 됐어요.”

기자가 이어 묻는다. “그럼 불교의 어떤 핵심적 가르침에 특히 이끌리게 되셨나요?”

“네, 제 경우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행무상, 즉 모든 것은 늘 그대로가 아니라 늘 바뀐다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선, 이는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불(佛), 즉 말 그대로 붓다 세존을 항상 제 마음에 떠올리는 겁니다. 이 모두는 제가 매일 사고를 하고 생활을 해감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티베트불교의 라마가 되고자 수행한 적이 있다는 스티븐 시걸 도반은 1997년 은사인 페노르 린포체로부터 툭쿠, 즉 '환생한 라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매스컴에 알린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선 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치거나 노골적으로 비아냥댄다. 그러자 당사자인 그보다 오히려 나로파대학 측이 발간하고 나선다.

1974년 콜로라도 주에 설립되어 NCACS로부터 불교대학으로 공식 인가를 받은 나로파 대학의 명의로 '그가 장기적인 수행과 덕행의 결실로 툭쿠가 되었다'고 재확인하기에 이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듯 남의 일에 시시비비가 다반사라서 "너나 잘하세요"란 유행어도 생기나 보다. 그 일이 있은 후 꽤 긴 세월 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던 그는 2004년 <영화의 모든 것>이란 전문지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중복이 되겠으나 문맥을 자르지 않고 자 원문에 가깝게 인용하기로 한다. 기자가 먼저 절그러운 질문부터 꺼낸다. "사람들은 대개 저명인사를 평가할 때 스크린에서 본 대로, 또는 어디서 얻어듣고 읽은 대로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시걸님께선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하하, 대처하긴요? 뭐, 그냥 잘들 하시라 그러고 저는 제가 하던 일만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게다가 비속하고 악의적인 취향에 편승하는 저질 언론 또한 적잖으니 그런 것에 일일이 촉각을 곤두세울 까닭이 없죠.”

기자가 서서히 말꼬리를 들린다. “언제부터 불교에 관해 배우기로 작심했나요?”

그의 답변이다. “불교란 작심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다만 제가 청소년기를 동양에서 지내다보니 어느덧 불교철학과 붓다의 가르침이 저라는

“많은요. 정신적 지도자인 모든 구루,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스치는 스승님들 모두가 제가 알고 싶은 분들이죠.”

“그럼 지금껏 자신이 해낸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제가 불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란 서로 돕고 베풀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여로입니다. 힘든 이들을 돕고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요. 불교는 그러한 행복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종교이자 생활철학입니다.” (계속) 성효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Never again injure people!
That is against the a law of gods.

사람을 더 해치지 말라!
이는 신들의 뜻을 거스름이라.

Once a huge snake had killed several villagers. They tried but failed to capture him, and desperately invited a holy hermit. At the snake's den, the hermit scolded him. "Never again injure people! That is against the a law of gods." The snake promised not to harm anyone. One day the villagers found and beat the snake with sticks and stones. He crawled away to hermit's hut crying. "Look at me! Following your advice, I am nearly dead. Is this the law of gods?" The hermit answered. "I said you were not to bite people anymore, but never said you couldn't hiss." A Korean monk chuckled at the story. "Ha, 100% sure! Generosity never means giving up all strategy for survival and self-defence."

어느 마을에 엄청난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데도 잡을 수가 없자 거룩한 은자를 애써 모셔왔다. 그는 뱀 굴을 찾아가 꾸짖었다. "사람을 더 해치지 말라. 이는 신들의 뜻을 거스름이라." 뱀은 그러 마고 약속했다. 어느 날 그 뱀이 나타나자 동네사람들은 막대기와 돌로 마구 두들겨 쳤다. 은자의 토크까지 기어온 뱀이 막 울었다. "제 꼴 좀 보세요! 은자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저는 다 죽게 됐어요. 이게 신들의 뜻인가요?" 은자가 대답했다. "난 내게 사람을 물지 말라했지, 석벽 검주는 소리마저 내지 말라하진 않았느냐!" 이 얘기에 어느 한국스님이 깔깔했다. "백번 맞는 말씀! 자기방어와 생존전략까지 몽땅 포기하는 건 명칭한 관용어어." 번역: 성효 스님 / 그림: 이태수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해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범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범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심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③③③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닛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교문 이필상